

#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화 연구

## A Study o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김남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영어학과

Namhee Kim(nkimpsu@hycu.ac.kr)

###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인과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동기와 탈동기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H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총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기술통계, t-검정, ANOVA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 하위요인 별 평균은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구성(장려)의 순이었다. 영어 학습 탈동기 하위요인 별 평균은 불안감,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의 순서였다.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차이 분석으로는 영어 학습 동기에서는 성별의 경우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 유무는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학생인 대상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서는 경쟁적 동기 요인과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대상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에서는 불안감, 수동적 학습 태도,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모두 여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직업 유무는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탈동기 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이버대학교 성인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영어교과 개발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동기 | 탈동기 | 온라인 영어 학습 | 사이버대학교 | 교양영어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yber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and demotivation in learning English. Data was collected from a survey of 498 students in a general English course at a cyber university located in Seoul. The survey inquired into participa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were used. The findings reveal that among the motivation factors ideal L2 self was the main cause of motivation followed by promotion-based instrumentality. Among the demotivation factors the anxiety factor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mean followed by negative investment value for learning English. The statistical analysis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ndicates that, in terms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factors, the male participants' ought-to L2 self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females' and the promotion-based instrumentality of the students who are unemployed was higher than those who are employed. Moreover, the younger the students' age, the higher their competitive motivation and promotion-based instrumentality. In terms of English learning demotivation, the female respondents achieved higher scores in the factors of anxiety, passive learning style, and negative investment value for learning English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In addition, employed students showed higher demotivation in negative investment value for learning English than those without employmen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in developing online English programs for cyber university students who possess diverse learning goals.

■ keyword : | Motivation | Demotivation | Online English Learning | Cyber University | General English |

## I. 서론

세계화 시대 및 지식 정보화 시대에 영어 학습에 대한 요구는 초, 중, 고등학교 정규교육 뿐 아니라 대학생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 함께 영어 학습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 동기(motivation)와 동기가 감소되는 탈동기(demotivation)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1-5].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들의 연령과 전공 그리고 언어수준 및 지역과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활발히 연구 되고 있으나[6-10], 대부분 교실에서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영어 학습의 유형이 온라인 영어수업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습 동기 연구[11]와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는 연령, 직업, 학습목적이 다양한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12]. 하지만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의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습 동기의 요인들과 동기를 감소시키는 탈동기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인 직장인들이 대다수인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을 알아보고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제2 언어 학습 동기

많은 연구자들은 학습 동기가 학습자들이 제2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들을 연구하였다[2][5][13][14]. 먼저 제2 언어 학습 동기의 정의를 살펴보면

Gardner는 동기를 언어를 학습하려는 열망과 태도와 노력이며 학습의 효율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언어습득에서 필요한 내적 욕구로 정의했다[3]. Gardner는 영어 학습 동기의 구인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에 동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성(integrativeness)과 영어 학습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도구적 지향성(instrumentality)으로 구분 했다[3][4][14]. 하지만 이 구분에는 영어가 국제어가 되어감에 따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영어 학습자 뿐 아니라 비영어권의 영어 학습자의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15][16].

Dörnyei는 제2 언어 학습의 영향 요인으로 제2 언어 학습자의 자아형성이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Gardner의 동기의 통합성과 도구적 지향성의 구인을 재구성하여 제2 언어 동기적 자아체계(L2 motivational self-system)를 제안했다[1][3]. 제2 언어 동기적 자아체계에는 3개의 하위 구인이 있는데 이상적 제2 언어 자아(ideal L2 self), 필연적 제2 언어 자아(ought-to L2 self), 그리고 제2 언어 학습 경험(L2 learning experience)으로 구분된다[17]. 이상적 제2 언어 자아는 영어를 공부할 때 학습자가 미래에 본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필연적 제2 언어 자아는 학습자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동기를 의미한다[1][18]. 즉, 진학이나 취업 및 승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구인인 제2 언어 학습 경험은 과거에 영어 학습을 경험한 것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Higgins는 언어 습득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된 욕구인 Gardner의 도구적 지향성을 '도구성(장려)'와 '도구성(방어)'로 구분했는데[3][14][19], 도구성(장려)는 영어 학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Dörnyei의 이상적 제2 언어 자아와 관련이 있고 도구성(방어)은 영어 학습을 함으로 불이익을 피하려는 것으로 Dörnyei의 필연적 제2 언어 자아와 관계있는 개념이다. 최근 추가 된 영어 학습 동기 요소로는 Kim이 주장한 경쟁적 동기가 있다[20][21]. 이것은 사회계층화와 학벌주의 등 한국의 교육, 사회적 특

징이 반영된 동기의 개념으로 영어 학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자하는 경쟁의식이 반영된 학습 동기를 말한다. 김태영은 경쟁적 동기는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서 비교의 대상을 설정해서 다른 수험생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한국의 교육사회적인 부분이 반영된 심리적 구인이고 이것이 영어 학습 동기 중에 경쟁적 동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8].

앞서 구분한 다양한 동기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영어 학습 동기가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강소현, 장재학의 연구에서는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필연적 제2 언어 자아도 영어 학업 성취도와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6]. Kim, Kim은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22]. 또한 우리나라 하위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를 조사한 이송희, 김태영의 연구에서는 하위권 초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경우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8].

## 2. 제2 언어 학습 탈동기

제2 언어 학습에는 오랜 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습자들의 동기가 감소될 수 있다. Dörnyei, Ushioda는 이것을 탈동기화(demotivation) 또는 동기 감소(demotivation)라고 주장한다[2]. 즉, 탈동기화는 행동의 동기의 기초를 감소시키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 영어 학습에서는 외부의 영향으로 영어 학습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동기는 무동기(amotivation)와는 다른데 무동기는 학습자 내부의 불안정한 요소들이 작용해서 학습 성취의 의욕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23][24]. 예를 들면 학습자가 처음부터 영어 학습의 이유가 없거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영어 학습의 의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탈동기화의 연구는 1990년 이후 유럽에서 시작되어 정립이 되고 있다[25][26]. 국내에서도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를 조사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송희, 김태영은 영어 하위권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를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하위권 영어 학습자들의 탈동기 요인 중에는 영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습교재의 부적합성, 영어에 대한 강제적 성격과 학습자의 자신감 부족이 요인으로 나타났다[8]. 강소현, 장재학은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영어 수준에 따른 탈동기를 조사했는데 부족한 자신감과 영어 학습 곤란도 등이 수준별 영어 학습 탈동기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6].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탈동기 요인을 조사한 이길례, 황종배의 연구에서는 제2 언어 학습의 강제적 학습 요인과 자신감 부족이 탈동기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7].

최근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 연구와 척도 개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7][28][29]. 대학생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을 탐색한 이재근, 김현정, 김은실의 조사에서는 부모 및 가정학습배경 요인이 탈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을 조사한 Cho, Chung의 연구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은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교수법으로 타나났는데[30], 이는 Ma, Cho[31]와 정미애, 김남희[3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스포츠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를 조사한 유호, 김지은의 연구에서는 탈동기의 가장 큰 요인은 교사나 수업 환경 요인보다는 학습자 요인으로 드러났다[7].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를 조사한 현주은, 김태영의 연구에서는 수동적인 학습태도가 직장인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불안감이 다음으로 영향을 미쳤다[9]. 이와 같이 한국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탈동기 요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영어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에 대한 연구는 오프라인 영어 수업을 수강하는 대상자들의 연령, 전공 및 성별의 차이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를 살펴본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인 성인 학습자들이 대다수이며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소를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특성

에 따른 동기와 탈동기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은 어떠한가? 둘째,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은 어떠한가? 셋째, 사이버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사이버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 요소를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 소재 H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2018학년도 2학기에 교양영어 과목을 수강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업의 차시별 설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전체 수강생 623명 중 498명의 학생들이 설문

에 응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남학생이 252명(50.6%), 여학생이 246명(49.6%)이었으며, 학년에 따른 분포는 1학년이 158명(31.7%), 2학년이 91명(18.3%), 3학년이 131명(26.3%), 4학년이 118명(23.7%)이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255명(51.2%), 30대가 117명(23.5%), 40대 이상이 126명(25.3%)이었다. 사이버대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자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 중 53명(0.6%)만이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나머지는 445명(89.4%)이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들의 특성

구분	내용	n=498(%)
성별	남성	252(50.6%)
	여성	246(49.4%)
직업	직장인	445(89.4%)
	학생(무직)	53(10.6%)
학년	1학년	158(31.7%)
	2학년	91(18.3%)
	3학년	131(26.3%)
	4학년	118(23.7%)

나이	20대	255(51.2%)
	30대	117(23.5%)
	40대이상	126(25.3%)

####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배경정보(성별, 학년, 나이, 직업유무) 4문항, 영어 학습 동기 19문항, 영어 학습 탈동기 14문항의 총 37문항의 설문지이다. 각 요인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영어 학습의 동기 및 영어 학습의 탈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들은 Dörnyei[1][17], Higgins[19], Kim[20]과 현주은, 김태영[9]의 연구에 사용된 것을 참고하여 사이버대학생들에게 적합한 문항들로 수정하였다(부록 참고).

설문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 구인으로는 Dörnyei가 제시한 제2언어 자아 체계인 이상적 제2 언어 자아(5문항)와 필연적 제2 언어 자아(3문항)이 포함되었고[1][17] Higgins가 제시한 도구성(장려, 5문항)[19]과 Kim이 제시한 경쟁적 동기(6문항)[20]이 포함되었다.

4개의 하위 구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Dörnyei가 주장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인 제2 언어 자아는 성인학습자들이 대부분인 사이버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학술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하였고 한국의 교육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Kim의 경쟁적 동기[20]도 같은 이유로 선택하였다. Higgins의 도구성(방어) 요인[19]은 Dörnyei의 필연적 제2언어 자아와 관계있는 구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이버대학생들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제2언어 학습 경험도 배제 했다.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 구인들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통해 요인회전을 하여 .490~.841의 요인적재 값을 검증하였고, 표본 적합도(KMO)는 .911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10이었다.

영어 학습 탈동기의 하위 구인으로는 현주은, 김태영의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들인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4문항), 불안감(3문항), 수동적 학습 태도(4문항),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3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요

인을 포함했다[9]. 탈동기의 하위 요인 중 부정적인 학습 투가 가치 요인은 제2 언어 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크면 노력을 더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탈동기 하위 구인 중에 수동적 학습태도와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문항들의 표현들은 사이버대학생들에게 맞는 표현으로 수정해서 설문하였다. 이 역시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통해 요인회전을 하여 .405~.822의 요인적재 값을 검증하였고, 표본 적합도(KMO)는 .873으로 나타났다으며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3이었다[표 2].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초분석(배경정보)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요인은 기술통계를 사용했고, 연구 대상자의 배경 정보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의 차이는 t-검정, ANOVA,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2. 문항 신뢰도

동기요인	Cronbach's $\alpha$		탈동기요인	Cronbach's $\alpha$			
	Deleted	Total		Deleted	Total		
영어 학습 동기	경쟁적 동기	.910	영어 학습 탈동기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873		
						.876	.709
						.864	.780
						.854	.641
						.885	.677
						.853	.650
	도구성 (장려)			.849		.705	
				.852		.740	
				.792		.788	
				.801		.481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840		.428	
				.844		.722	
				.815		.667	
				.823		.629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815		.720	
				.860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683			
				.624			
				.780			

### 1.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요인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별 평균은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도구성(장려),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경쟁적 동기의 순서로 높았다. 영어 학습 동기 하위요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다.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4.14점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구성(장려)는 3.68점으로 두 번째로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연적 제2 언어 자아가 2.87점, 그리고 경쟁적 동기가 2.8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이상적 제2 언어 자아에 관한 질문들은 '나는 종종 외국에서 살거나 여행, 출장, 어학연수 등을 나가 현지에서 영어로 말하는 모습을 그려 본다', '나는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나를 상상하면 즐겁다', '나는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영어 공부 자체가 즐겁고 흥미롭다'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이 영어 학습 동기 요인 중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사이버대학교 영어 학습자들은 미래에 그리는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강소연, 장재학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영어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과[6], 하위권 초등학교 고등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살펴본 이승희, 김태영의 연구에서 이상적 제2 언어 자아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8].

두 번째로 높은 평균인 도구성(장려)의 문항들은 '영어를 잘 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므로 영어 공부는 중요하다', '영어를 잘하면 현재나 미래의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공부 한다', '가까운 미래에 학업이나 직무관련 성과와 같이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어공부를 한다'이었다. 도구성(장려) 요인이 높게 나온 결과로 사이버대학교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을 통해서 직장업무나 하는 일의 성공 등의 긍정적인 이득을 목표로 또한 공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상적 제2 언어 자아와 도구성(장려) 요인들이 높게 나온 결과는 Higgins가 이상적 제2 언어 자아와 도구성 요인들은 성취와 희망을 포함하고 있어서 서로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관련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19]과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동기와 탈동기 요인을 조사한 현주은, 김태영의 연구 결과[9]에서도 두 요인이 높은 영향력을 보인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나머지 두 개의 동기 요인인 필연적 제2 언어 자아와 경쟁적 동기 성향은 다른 동기요인들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이버대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혼자 하는 학업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표 3.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기술통계

요인	경쟁적 동기	도구성(장려)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평균	2.81	3.68	4.14	2.87
표준 편차	1.09	0.99	0.76	1.10

## 2.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의 하위요인 별 평균은 불안감,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수동적 학습 태도,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순이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감 요인이 2.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가 2.70 점, 수동적 학습 태도가 2.50점으로 타나났고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86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불안감 요인의 문항들은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부족함을 느낀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이 있다’, ‘과거 영어 학습에 실패 했거나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이었다.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사이버대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과거 영어 학습에 실패한 경험이 영어 학습 탈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탈동기를 연구한 강소연, 장재학[6], 이길례, 황종배[27]의 연구와 성인 직장인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를 조사한 현주은, 김태영[9]의 연구에서도 불안감 요소가 탈동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높게 나온 영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항목의 문항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가정이나 직장 업무가 과중하다’, ‘전공수업이나 직장 업무에 관련된 공부가 영어 학습보다 우선이다’, ‘영어 공부에 돈(등록금)을 투자하는 부담감이 있다’이었다.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의 경우 대부분 성인 직장인들인 사이버대학생들에게는 뚜렷하지 않은 영어 학습 목표의식과 가정 또는 직장의 업무와 함께 금전적 지출의 부담감도 탈동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사이버대학생의 영어 학습 탈동기 기술통계

요인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안감	수동적 학습 태도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평균	1.86	2.72	2.51	2.70
표준 편차	0.78	1.06	0.92	0.94

## 3. 사이버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 차이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특성인 성별, 직업, 학년, 나이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 차이는 [표 5]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직업에 대해서는 이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2개 이상의 집단을 가지는 학년과 나이에 대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성별에서는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 유무는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나이에서는 경쟁적 동기 요인과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에서 남성이 2.98점으로 여성 2.76 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연적 제2 언어 자아가 ‘학습자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 영어를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기임을 볼 때, 남성이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과 압력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직장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동기와 탈동기 차이를 연구한 현주은, 김태영의

결과[9]와도 일치한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 관련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업적인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33]과도 맥을 함께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3.65점, 학생인 대상자는 3.95점으로 직업이 없는 학생인 대상자의 도구성(장려) 요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없는 사이버대학교 영어 학습자들은 직장이 있는 학생들 보다 미래에 직업을 얻거나 성공을 위해서 영어를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보통 승진이나 전문성 심화 또는 이직 등의 현 직장에서의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해 영어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비 직장인 학생들이 더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의 경우 경쟁적 동기 요인에서 20대가 3.02점, 30대가 2.71점, 40대 이상이 2.49점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도구성(장려) 요인 또한 20대가 3.85점, 30대가 3.58점, 40대가 3.44점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젊을수록 주위와 동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더 높고 영어를 도구로 해서 성공하려는 목표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대 연령에서 경쟁적 동기와 도구성(장려) 모두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이들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연령층보다 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년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사이버대학 영어 학습자들은 나이나 직업 등 다양성이 많고 2학년과 3학년 편입생이 많기 때문에 학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된다.

#### 4. 사이버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는 [표 6]과 같다. 학습자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의 동기 차이와 동일하게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직업에 대해서는 이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2개 이상의 집단을 가지는 학년과 나이에 대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성별 간에는 영어 학습 탈동기의 하위요인 중 불안감, 수동적 학습태도,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 유무는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과 나이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탈동기 차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불안감 요인에서 남성이 2.53점, 여성 2.92점, 수동적 학습 태도 요인에서 남성이 2.40점, 여성이 2.62점,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남성이 2.57점, 여성이 2.8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3개의 요인에서 모두 여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남성보다 여성이 영어 학습에 부족함과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으며, 혼자서 온라인으로 영어수업을 하는 한계를 더 느끼는 등 수동적인 학습태도가 더 나타났고, 가정이나 직장의 업무를 남성보다 더 과중하고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에 투자하는 부담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주은, 김태영의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요인이 직장인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이 나온 것[9]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현주은과 김태영은 남성의 경우는 직업적 성공과 회사 업무 등의 활동을 최우선으로 여기므로 그것을 충족시킬 투자 가치가 없으면 여성보다 크게 영어 학습 탈동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했고, 반면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아가 낮아서 이것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 학습을 해서 상대적으로 영어 학습 탈동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했다[9].

직업의 경우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2.74점, 학생인 대상자는 2.37점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탈동기 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이버대학교의 직장인 학습자들은 직장업무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인들의 경우는 영어 학습 보다는 직장 업무의 중요성과 직장관련 공부를 더 우선으로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습자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의 차이

구분	내용	n	경쟁적 동기			도구성(장려)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M±SD	t	p-value	M±SD	t	p-value	M±SD	t	p-value	M±SD	t	p-value
성별	남	252	2.89±0.07	1.793	0.074	3.68±0.06	0.996	0.996	4.10±0.05	-1.486	0.139	2.98±0.07	2.281*	0.023
	여	246	2.72±0.06			3.68±0.06			4.20±0.04			2.76±0.06		
직장	직장인	445	2.78±0.05	-1.806	0.072	3.65±0.05	-2.053*	0.041	4.15±0.04	0.256	0.798	2.85±0.05	-1.311	0.19
	비직장인(학생)	53	3.07±0.16			3.95±0.14			4.12±0.11			3.06±0.13		
학년	1학년	158	2.87±0.08	0.494	0.687	3.79±0.07	1.275	0.282	4.17±0.06	0.446	0.72	2.87±0.09	0.069	0.976
	2학년	91	2.86±0.12			3.69±0.11			4.13±0.09			2.91±0.13		
	3학년	131	2.74±0.09			3.66±0.09			4.18±0.06			2.84±0.09		
	4학년	118	2.77±0.11			3.56±0.09			4.08±0.07			2.87±0.10		
나이	20대	255	3.02±0.07	10.933**	<0.001	3.85±0.06	8.321**	<0.001	4.16±0.05	0.712	0.491	2.91±0.07	1.812	0.164
	30대	117	2.71±0.09			3.58±0.09			4.08±0.08			2.70±0.11		
	40이상	126	2.49±0.09			3.44±0.09			4.19±0.06			2.94±0.10		

(\* p< .05, \*\*p<.01)

표 6. 학습자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

구분	내용	n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안감			수동적 학습태도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M±SD	t	p-value	M±SD	t	p-value	M±SD	t	p-value	M±SD	t	p-value
성별	남	252	1.83±0.05	-0.813	0.417	2.53±0.06	-4.238**	<0.001	2.40±0.06	-2.764**	0.006	2.57±0.06	-3.081**	0.002
	여	246	1.89±0.05			2.92±0.07			2.62±0.06			2.83±0.06		
직장	직장인	445	1.86±0.04	0.401	0.689	2.71±0.05	-1.048	0.295	2.49±0.04	-1.387	0.166	2.74±0.04	2.755**	0.006
	무직(학생)	53	1.82±0.09			2.87±0.16			2.67±0.13			2.37±0.11		
학년	1학년	158	1.90±0.07	1.027	0.38	2.82±0.08	1.464	0.224	2.55±0.07	0.408	0.747	2.75±0.07	1.079	0.358
	2학년	91	1.92±0.08			2.66±0.12			2.45±0.09			2.68±0.10		
	3학년	131	1.76±0.06			2.59±0.09			2.46±0.08			2.59±0.08		
	4학년	118	1.88±0.07			2.79±0.10			2.55±0.09			2.78±0.09		
나이	20대	255	1.89±0.05	0.254	0.776	2.79±0.07	1.639	0.195	2.54±0.06	2.144	0.118	2.69±0.06	1.598	0.203
	30대	117	1.84±0.07			2.58±0.10			2.59±0.08			2.83±0.09		
	40이상	126	1.83±0.07			2.71±0.09			2.37±0.08			2.62±0.08		

(\* p< .05, \*\*p<.01)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학습 탈동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2학기에 서울 소재 H 사이버대학에서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한 총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술통계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t-검정, ANOVA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별 평균은 이상적 제2 언어 자아와 도구성(장려)가 높게 나왔으며 이는 사이버대학생들은 미래에 그리는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을 통해서 직장업무나 하는 일의 성공 등의

긍정인 이득을 목표로 영어공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 학습 탈동기의 하위요인 중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안감과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였는데 사이버대학생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자신감이 부족하고 과거 영어 학습에 실패한 경험이 영어 학습 탈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특성인 성별, 직장, 학년, 나이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와 탈동기요인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동기의 차이는 성별 간에는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필연적 제2 언어 자아 요인에서 남성이 높았다. 즉, 남성이 직장과 동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과 압력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직업 유무는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직업이 없는 학생들이 직장인 학생들보다 미래에 직업을 얻거나 성공을 위해서 영어를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이에서는 경쟁적 동기요인과 도구성(장려) 요인에서 나이가 젊을수록 주위와 동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더 높고 영어를 도구로 해서 성공하려는 목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영어 학습 탈동기 차이는 성별 간에는 여성이 불안감, 수동적 학습태도,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 유무에서는 직업을 가진 대상자들이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사이버대학의 직장인 학습자들은 직장업무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영어수업 개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학습 동기 요소에서 학습자들이 미래의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성취하는 목적과 하는 일을 성공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목적을 반영한 영어 수업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영어 학습 탈동기 요소에 불안감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동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학습하는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양화하고[34][35],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에 자신감을 올려주는 수업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들에게는 직업과 학업병행의 어려움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서[36] 직업과 가정생활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인 사이버대학생들의 특성들을 반영한 맞춤형 수준별 영어 수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사이버대학교의 영어 수업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설문지 중심으로 조사한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의 동기와 탈동기 결과를 전국 사이버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

라서 향후 전체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포함한 정성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사이버대학생들의 추가적인 동기와 탈동기의 요소들을 찾아 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Z. Dörnyei,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5.
- [2] Z. Dörnyei and E. Ushioda,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2nd Ed.)*, Harlow, UK: Longman, 2011.
- [3] R. C. Gardner,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1985.
- [4] R. C. Gardner,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socio-educational model*, New York, Peter Lang, 2010.
- [5] R. Oxford, "Relationships between 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nd language proficiency in the context of learner autonomy and self-regulation," *Revista Canaria de Estudios Ingleses*, Vol.38, pp.109-126, 1996.
- [6] 강소연, 장재학,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영어 수준에 따른 탈동기화 원인 비교 연구," *Secondary English Education*, 제10권, 제2호, pp.21-42, 2017.
- [7] 유호, 김지은,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화에 대한 연구 스포츠 관련 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 영문학 연구*, 제59권, 제1호, pp.313-326, 2017.
- [8] 이송희, 김태영, "우리나라 하위권 영어학습자의 영어 학습동기와 탈동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비교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제20권, 제3호, pp.169-194, 2015.
- [9] 현주은, 김태영, "한국 직장인의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화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제20권, 제2호, pp.163-188, 2013.
- [10] 홍예리, 김태영,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연구: 거주 지역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 심으로,”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제57권, 제1호, pp.281-310, 2013.
- [11] 김태영, 김은주, 김혜영, “온·오프라인 결합 교양영어 수강 대학생들의 학습동기 유형과 변화,” *Modern English Education*, 제12권, 제1호, pp.126-156, 2011.
- [12] 정재삼, 이지현, “사이버대학생의 지각된 자율성지 지, 자기결정성 동기, 학습 성과 간의 경로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8권, 제3호, pp.365-387, 2012.
- [13] G. Crookes and R. W. Schmidt, “Motivation: Reopening the research agenda,” *Language Learning*, Vol.41, pp.469-512, 1991.
- [14] R. C. Gardner, “Integrative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Z Dörnyei & R Schmidt (Eds.),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pp.1-19), Honolulu, HI: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 [15] B. Kachru,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In: Quirk R., Widdowson H. (Eds.),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literatures*(pp.11-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16] S. Ryan, “Self and identity in L2 motivation in Japan: The ideal L2 self and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pp. 120-143),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2009.
- [17] Z. Dörnyei,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pp.9-42),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2009.
- [18] 김태영, *영어 학습 동기 연구의 최근 경향*, 한국문화사, 2013.
- [19] E. T. Higgins,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rit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30, pp.1-46, 1998.
- [20] T. Y. Kim, “Motivation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language learning as socio-politically mediated constructs: The cas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Asia TEFL*, Vol.3, No.2, pp.165-192, 2006.
- [21] T. Y. Kim, “Socio-political influences on EFL motivation and attitudes: Comparative survey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Vol.11, pp.211-222, 2010.
- [22] Y. K. Kim and T. Y. Kim, “An investigation on male high school students’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English learning,” *English Teaching*, Vol.73, No1, pp.135-160, 2018.
- [23] R. M. Ryan and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pp.68-78, 2000.
- [24] Z. Dörnyei,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Harlow, UK: Longman, 2001.
- [25] G. N. Chambers, “Taking the ‘de’ out of demotivation,” *Language Learning Journal*, Vol.7, pp.13-16, 1993.
- [26] E. Ushioda, “Effective motivational thinking: A cognitiv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In E. A. Soler & V. C. Espurz (Eds.), *Current issues in English learning methodology*(pp.77-89), Castelló de la Plana, Spain: Universitat Jaume, 1998.
- [27] 이길레, 황종배, “고등학교 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상실 요인 연구,” *Secondary English Education*, 제10권, 제2호, pp.43-73, 2017.
- [28] 여숙림, 이종복,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 요인 척도 개발,” *현대영어영문학*, 제59권, 제1호, pp.211-231, 2015.
- [29] 이재근, 김현정, 배은실, “EFL 대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과 탈동기 요인들의 관계—경로분석,” *영어영문학*21, 제29권, 제3호, pp.315-340, 2016.
- [30] A. Y. Cho and H. Y. Chung, “Demotivation and Remotivation Affecting L2 English Learning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21st Century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27, pp.387-408, 2014.
- [31] J. H. Ma and Y. A. Cho, “The Analysis of Demotivators and Remotivators for Korean L2 English Learner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 Literature Vol.40, pp.137-161, 2014.
- [32] 정미애, 김남희, “한국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입학 전 영어 학습경험과 영어 학습 탈동기화 현상,” Journal of Studies of Language, 제34권, 제1호, pp.63-78, 2016.
- [33]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중년기 성인 남녀의 성공, 실패, 미래성취의식: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18권, 제2호, pp.299-330, 2011.
- [34] 이은철,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에서 학습 동기 유형에 따라 교수메시지에 대한 반응행동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5호, pp.514-524, 2018.
- [35] 이은철, “온라인 협력학습 과정의 참여 수준에 대한 학습전략의 영향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pp.63-72, 2018.
- [36] 이다예, 서영숙, 김영임, “원격대학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와 ASE 모델 요인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0호, pp.453-463, 2018.

저 자 소 개

김 남 희(Namhee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어학과 (학사)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석사)
- 2003년 5월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영어교육(박사)
- 2007년 4월 ~ 현재 : 한양사이버

대학교 영어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어교육, 멀티미디어 영어학습, 영어쓰기, 교사교육

부 록

영어 학습 동기 설문 문항

경쟁적 동기	Q1: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나에게 영어공부 하는 것은 중요하다.
	Q2: 내 주위 사람들이 영어는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
	Q3: 가족이나 동료, 상사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영어공부를 한다.
	Q4: TOEIC 등 영어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영어공부를 한다.
	Q5: 영어를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동료들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
	Q6: 현재 직장이나 미래의 직장 내 평가에서 나쁜 성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영어공부를 한다.
도구성(장려)	Q7: 영어를 잘 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므로 영어공부는 중요하다.
	Q8: 영어를 잘하면 나의 하는 일이나 직장 업무에 도움이 된다.
	Q9: 영어를 잘하면 현재나 미래의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공부한다.
	Q10: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무,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중요하다
	Q11: 가까운 미래에 학업이나 직무관련 성과와 같이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어공부를 한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	Q12: 나는 종종 외국에서 살거나 여행, 출장, 어학연수 등을 나가 현지에서 영어로 말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Q13: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Q14: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나를 상상하면 즐겁다.
	Q15: 나는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Q16: 영어공부 자체가 즐겁고 흥미롭다.
필연적 제2언어 자아	Q17: 내 주위나 직장에서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영어 공부를 강요한다.
	Q18: 내 가족, 동료 및 직장 상사 등 주위 사람들은 영어공부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Q19: 가족, 직장동료나 주위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영어를 잘해서 나도 영어공부를 잘하고 싶다

영어 학습 탈동기 설문 문항

부정적 태도	Q1: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문화에 대한 나의 나쁜 감정이 있다
	Q2: 경력을 쌓는데 영어실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3: 내가 영어공부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가족이나 직장 내 분위기가 있다
	Q4: 영어를 잘하기를 요구하는 주위 사람들, 직장 및 사회로부터 압박감이 있다
불안감	Q5: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부족함을 느낀다
	Q6: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이 있다
	Q7: 과거에 영어 학습에 실패했거나,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수동적 학습 태도	Q8: TOEIC과 같은 시험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Q9: 혼자서 온라인 영어수업을 수강하는 한계가 있다
	Q10: 온라인 수업이라서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참여는 못한다
부정적인 학습 투자 가치	Q11: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Q12: 가정이나 직장 업무가 과중하다.
	Q13: 전공수업이나 직장 업무에 관련된 공부가 영어 학습보다 우선이다.
	Q14: 영어공부에 돈(등록금)을 투자하는데 부담감이 있다